

服飾史學의 課題

曹 圭 和

에 對한 探究로 向하게 되는 길이다.

I. 序

우리들은 服飾의 歷史에 關해서 研究해 왔다. 服飾史에 關한 著書도 나오고 이에 對한 論議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服飾史는 服飾 그 自體의 變遷만을 단 지 年代順으로 追從해서 解決하려는 傾向이 많았다. 지금까지의 服飾史는 主로 「衣服」이라는 物質的인 素材를 對象으로 하여 그 形態上의 變化에만 着目해 왔다. 그러나 歷史學 一般이 그런 것처럼 古文書나 遺品에서 發見된 過去의 事實은 人間과 關連되어서 비로소 「歷史的 事實」이 된다. 이러한 問題가 度外視되어 왔다. 服飾이 史的으로 確立되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衣服을 生産하고 그것을 몸에 걸치는 「人間的 歷史」가 構想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服飾史의 意味와 本來의 目的은 무엇인가? 또 이것의 位置는 어디있으며, 이러한 位置에서 服飾史만이 가지고 있는 意味를 表現하면서, 目的을 向해 가기 爲해서는 어떤 方法을 擇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服飾史의 意味와 位置에 關해서 생각해 보고 本來의 目的을 設定해 보는 것에 의해서 服飾史의 方法論에 對한 反省을 해 보는 것과 아울러 그 方向을 提示하려고 한다. 이것은 結局 服飾의 自律性的의 獲得을 目標로 하는 것이며, 그 方向은 服飾의 意味

II. 服飾史의 位置

服飾史에 關한 研究가 활발해지기 始作한 것은 불과 몇年前의 일이다. 그렇다고 이 以前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服飾史에 對한 研究는 主로 家政科 或은 家政大學의 衣類科系統에서 擔當해 왔다. 衣服이 가지는 目的을 一元的으로 解決할 수 없기 때문에 衣類科系統의 教科課程 역시 多角度에서 行하여졌다. 이로 因해서 服飾史에 對한 研究는 느린 템포로 行하여졌고, 過去의 服飾을 再現시키는 데 그 目的을 두고 미흡한 高證으로 이것을 實現시켰다.

最近 유럽의 史學 思想의 潮流를 보면 프랑스의 아나—르派의 歷史理論의 動向이 注目된다. 후란소아즈·피포니에는 『服裝과 社會生活』에서 새로운 問題 意識을 提起시키고 있으며¹⁾, 杉本氏는 「服裝史가 가지는 學問으로서의 致命的인 缺陷」에 對해서 이미 指摘한 바 있고 家永三郎氏는 「歷史科學의 하나로서 服飾史가 가지는 根本問題」에 對하여 論하고 있다.²⁾ 그는 「어떠한 局部의 領域을 取扱해도 거기엔 반드시 全歷史 構造가 反映되어 있다.」고 指摘하고 「縱으로 時代를 쫓고 있는 하나의 分野에 注目된 特殊史」로 服飾史를 보고 있다.

워낙 服飾史는 精神史, 政治史, 社會史, 經濟

1) 이에 關해서는 中江美幸 「服飾史研究序說—F. Pipponnier の業績に 寄せて」 『國民經濟雜誌』 134—2 參照.

2) 家永三郎 「服裝史의 根本問題」 『服裝文化』 155號 文化出版局.

史, 宗教史, 風俗史 等 다른 領域과 必然적으로 關連되고 結合하여 實現될 수 밖에 없다. 이들 形式外的, 服飾外的인 여러 領域은 各各, 背景 根底, 環境, 地盤 等으로 成立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歷史的, 社會的, 現實과의 「主題的 素材的 關連」에서 이들은 「場所」로서 或은 「動機」로서 成立할 수 밖에 없다. 服飾史는 恒常 歷史的 事實로서 이들 服飾外的인 여러 條件과 必然적으로 不可分하게 關係되어 成立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制約은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들 여러 條件을 理解하는 것은 服飾史에서 아주 重大하다. 그러나 이들은 그 根源을 다르게 하며 原理적으로 區別되어야만 한다. 服飾史는 이들의 어떤 것도 아니며, 이들의 어떤 것에도 還元되는 것도, 이들의 어떤 것에서 原理적으로 規定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服飾은 人間의 몸에 입혀지는 것에 의해서 비로소 그 獨自性을 發揮하며 服飾의 本質은 身體와의 關連에서 다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身體란 메르로·폰티가 말하는 身體³⁾로 各各 個性的인 面貌, 態度, 行動을 갖고 多面的인 生活 環境 속에서 삶을 營爲하며 이른바 歷史的 社會的인 可能存在로서 呼吸하고 있는 身體이다.

이렇듯 服飾史는 服飾이 가지는 本來的 意味에서 文化史의 一分野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文化史란 한마디로 말해서 人間精神의 歷史이다. 勿論 歷史의 根本的인 要求에 의해서 史實의 確定은 第一步이며 이는 可能한 限 緻密해야 한다.

Ⅲ. 服飾史의 目的

服飾史는 文化史의 一分野라고 앞에서 말했지만, 服飾史가 目標로 하는 것은 文化史와 같은 立場에서 있다고 하겠다. 文化史가 目標로 하는 것은 하나의 事實, 하나의 行爲中에 그 事實이나 行爲를 지탱했던 人間의 精神을 찾아 내는 일, 즉 느끼고 思考하고 決斷하는 人間의 精神을 찾아 내는 일이다.

文化史는 精神史이어야 하지만 이는 단지 思

想의 歷史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같은 것이 아니다. 이는 더욱 生命에 가득찬. 이른바 人間의 精神이 갖는 드라마의 再生이어야 한다.

歷史란 過去와 現在와의 對話이며 過去의 여러 가지 일어난 일과 드디어 나타날 未來의 여러 가지 目的과의 사이의 對話이다. 歷史가 이처럼 생각될 때 모든 歷史를 理解하는 데는 2가지의 觀點이 있다고 본다. 그 하나가 歷史에서 機緣의 觀點이며, 다른 하나가 歷史의 現前이다. 機緣이 없다면 하나의 作品은 생겨나지 않는다. 더우기 現前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作品을 정말로 가질 수 없다. 歷史를 接할 때 이러한 兩面은 언제나 表裏를 가지고 同伴되지 않으면 안된다. 文化史가, 따라서 服飾史가 人間의 精神이 갖는 드라마를 再生하는 것을 任務로 한다고 할 때, 그 再生은 이러한 理解 위에서만 可能할 것이다.

機緣을, 더우기 그 一部를 論하는 것으로 歷史를 본다면 이는 歷史를 단지 「이렇게 있었다」라는 態度로만 보기 때문에 지나친 歷史主義의 過誤라고 할 수 있다. 反對로 現前に 모든 것을 다하는 것도 過誤를 범하는 것이다. 이는 現代를 모든 것의 規準으로 생각하는 現代主義의 잘못인 것이다. 또 機緣에 關해서 充分한 考察없이 現前을 말하는 것은, 그 對象에 對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있을 수 없는 對話를 마음대로 假說하게 된다. 機緣에 關해서 될 수 있는대로 銳利한 知識을 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各各의 文化나 時代를 通해서 人間은 그들이 意志하는 것을 實現했다. 이 理解는 歷史에 對한 한 時代의 根本立場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意味에서 歷史는 우리들에 對해서, 人間의 存在의 여러 可能을 보이는 것이다. 人間은 이처럼 있을 수 있었고, 또한 저처럼 있을 수 있었다. 人間은 이처럼 意志하고, 또한 저처럼 意志한다. 우리들이 現代를 尺度로 하는 現代主義의 잘못에서 脫出한다면, 歷史는 우리들에게 人間의 存在의 無限한 可能을 보여 줄 것이다.

時代에는 時代의 意志가 要求되는 것처럼, 各

3) M. Merleau-Ponty; L'oeil et l'esprit (1964)에서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나는 自己의 身體를 分割할 수 없는 하나의 全體로 살고 있으며 나의 身體는 全力을 다해서 世界를 向하고 있다.

文化의 傳統에는 各各의 意志가 있다. 服飾은 한 사람의 天才의 作品이 아니라, 이른바 作家 없는 作品으로서의 性質을 갖는 것이 普遍的이다.⁴⁾ 이는 가끔 하나의 型을 낳아서 取扱할 수 있다. 型이란 個性에 對立하는 概念이 아니다. 오히려 型이란 個性의 축적위에 생기는 것이며, 그러므로 因해서 時代의, 또 文化의 意志를 보는 위에 明白한 道標로 되는 것일 것이다. 一般的으로 裝飾造形이 다른 造形 分野에 비해서 造形에서 民族의 特性을 明白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이 個性의 축적으로서의 型에 到達하고 있는 것, 偶然的 것이 除外되고 作家없는 作品으로서 民族의 氣質을 顯著하게 反映하는 것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服飾에 있어서 民族의 氣質이라고 하는 것을 論할 때에 一種의 風土論과 關連시킬 때가 많다. 그러나 人間精神의 所産을 問題로 하는 以上, 그 風土란 어디까지나 人間을 包含한 意味를 가진 風土이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物理的, 自然的인 風土⁶⁾는 어디까지나 條件에 不過하며, 人間의 意志는 條件의 結果가 아니기 때문이다.

時代를 縱으로 쫓아 가면 社會構造가 複雜해지고 生活이 分化하여 감에 따라 服飾과 歷史 社會의 關連은 當然 變化가 생겨난다. 例를 들어서 原始社會에서는 衣服에 實用的인 機能과 呪術的, 裝飾的 機能⁷⁾이 뚜렷한데 階級社會에 들어와서는 政治的 役割이 더해져서 衣服은 階級이나 階層의 심볼이 된다. 近世以後商品經濟가 浸透해 오면, 原料나 織物의 供給, 衣服의 製造같은 商工業의 要素 즉 經濟史와의 關係가 強해진다. 그밖에 家永氏가 指摘한 바와 같이 技術發達史나 男女差別, 혹은 審美的, 裝飾的, 要素와의 關係도 無視할 수 없다. 「人間의 歷史는 總合으로 取扱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命題는 歷史學으로서의 服飾史에서 不可缺의 條件이다.

文化의 生成에 關係되는 原理로 모—드는 變化, 交替하는 패손어블한 動勢를 그 生命으로 하고 華麗한 衝擊을 주며 歷史의 表面에 나타나 자라며 마침내는 사라진다. 모—드는 결코 偶然이나 狂亂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人間이 太古 以來 文化의 形成者로서 依存해 온 生成의 根源的인 리듬을 쫓고 있는 것이다. 모—드는 이른바 人間社會에 있어서 文化表現의 基盤이며, 이는 人間의 身體라는 작은 意味로 限定되지 않고 人間의 全體的인 趣味의 世界를 뜻해서 그 表現方法은 合法則化하고 또 變容하는 獨自의 힘을 가지는 것으로 生覺된다. 그러므로 모—드는 變化와 持續, 流行과 衰退를 벗어나 文化라는 恒究的인 價値體系에 들어가는 것에 그 本質이 있다.

이렇듯 服飾史가 目的으로 하는 것은 服飾의 흐름을 時間的으로 把握하여 服飾의 本質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본다. 즉 各 時代에 나타난 個個의 服飾現象 속에서 類型을 찾고 이들을 어떤 時代에서 特徵짓게 하는 한편, 이들 속에서 하나의 흐름을 보는 것이며 이로 因해서 服飾의 固有性을 把握하려고 하는 것이다.

精神的 肉體的인 것을 아울러서의 意味로 健康한 服飾, 그 위에 審美的인 欲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方向을 向한 問題意識을 갖기 위해서 過去의 服裝의 變遷을 批判적으로 보아 가는 것이 重要하다.

IV. 服飾史의 方法에 對한 反省

從來의 服飾史나 現在 服飾史로 生覺하고 研究해 오고 있는 것이 服飾의 目的에 到達할 수 있는 方法論的인 反省위에 行해지고 있는 것일까? 具體的인 例를 들어보자.

從來의 服飾史의 方法은 政治, 社會, 宗教 等의 背景에 의해서 이들을 中心으로 하여 問題를 解決했다. 例를 들면 이집트의 服飾, 크레타의

4) 例外로 二十世紀에 들어와 現代服飾의 開拓者라고 부를 수 있는 Paul Poiret나 五十年代를 주름잡았던 Christian Dior 等を 들을 수 있다. 이에 關해서는 拙稿 「크리스장·디올研究」 『國民大學論文集』 第12輯 參照.

5) 拙稿 「韓國古代의 唐草文樣」 『服飾美學』 第五號 參照.

6) 和辻哲郎 『風土』(昭和十年)는 副題인 「人間學的考察」에서 風土에 의하여 人間의 類型을 셋으로 區分하고 있다.

7) 拙稿 「西洋服裝史 I」 『三都』 1978.5. 參照

服飾, 희랍의 服飾을, 各 時代의 服飾을 나타내기 爲해서 이집트의 絶對的인 宗教性, 階級性, 나일강 流域의 風土性, 크레타의 明朗한 宗教性 豊富한 經濟性, 温和한 氣候, 희랍의 神話的인 宗教性, 貴族制度이면서 民主政治, 이데아의 思考性을 들어서 問題를 解決하려고 했다. 或은 西洋 中世服飾을 論할 경우 基督敎的 宗教性에 의해서 그 意味를 表現했다. 즉 中世服飾은 宗教에 의해서 肉體를 否定했기 때문에 暗黑時代였다고 論했다. 그러나 中世를 通하여 繼續 聖像崇拜에 對한 論爭이 여러번 나오고 結局 承認을 받게 된 것은 當時의 人間들이 肉體를 認定했던 것으로, 中世는 暗黑時代가 아니라, 조용히 胎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를 들어 보자. 로코코 服飾이 新古典主義 服飾으로 變化한 것은 프랑스 革命에 그 原因을 두었었다. 즉 貴族이 몰락하고 市民服이 나왔기 때문에 過剩裝飾이 물러나고 單純한 스타일로 樣式의 變化를 가져 왔다고 했다. 産業革命은 機械의 發明에 의해서 실루엣의 變化를 가져 오게 했다고 說明했다. 1969年 世界的인 石油波動은 纖維業者들에게도 波及되어 纖維의 消耗量을 增加시키기 爲해 미니대신 롱·스커트를 내놓았으나 美國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服飾은 政治, 經濟, 社會, 宗教와 같은 外的條件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나 服飾은 이들에 의해서 成立되는 것은 아니다. 服飾을 입은 것은 決코 프랑스 革命도 아니고 産業革命도 아니며, 經濟不況도 아니다. 服飾을 입은 것은 다름 아닌 그 當時 살고 있던 살아 있는 人間들이었다. 그러므로 服飾史를 다룬다는 것은 이들 살아 있는 人間들이 입고 있던 服飾을 人間과 함께 다룬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에 關해서 板倉壽郎氏가 「被服美의 構造」에서指摘한바 있지만⁸⁾ 服飾이 成立하는 곳은 生活하는 곳과 같은 곳이어서 이와 같은 여러가지 外的條件과 깊은 關係를 갖는 것은 當然하지만 이들 問題가 그대로 한 時代의 服飾性이 될 수는 없다. 이들 問題는 服飾을 지탱해 주는 意志的인 것의 움직임

에 의해서 비로서 한 時代의 服飾性으로 되는 것이다.

從來의 思考方式은 服飾의 歷史中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事實을 열거하는 方法으로 解決하는 경우가 많았다. 事實은 그 하나 하나가 現象이며 이것들이 모여서 傾向을 보인다. 李朝時代의 裝身具를 열거하거나 各時代에 나타나는 文樣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그 本質을 把握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李朝時代의 白衣의 問題도 그렇다. 白衣는 決코 染色이나 洗濯이 便하기 때문에 우리 民族에게 愛用되어 온것은 아니다. 白色의 象徵效果인 깨끗하고, 화사롭고, 결백하며 單純素朴한 것이 우리 民族의 氣質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白衣의 問題에 對한 從來의 方法은 「現代의 눈」에 의한 잘못된 判斷이며, 事實의 열거로만 解決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現象만을 追求하여 그것을 열거한다면, 從來의 事實에서 앞으로는 คอมพิวเตอร์으로도 處理할 수 있을 것이다. 事實은 正確性을 기할 수 있지만 普遍性을 가지지 못한다.

다음은 現象的인 事實展開에서 時代 現象의 意味를 던져주는 方法이 있다. 이는 앞서도 말했지만 正確한 現象把握은 歷史科學으로서 必要하다. 우리들은 過去의 服飾現象을 알기 爲한 手段으로서 服飾遺品을 使用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限定되어 있어서 美術作品, 文藝, 歷史書 등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美術이나 文藝가 當時의 人間들에 의해서 創作된 것인 이상, 거기에는 人間의 創造하려는 意志가 가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美術이나 文藝가 「物」을 解說하기 爲해 描寫되거나 彫刻된 것도 아니며, 記述된 것도 아니다. 特히 美術과 服飾의 경우 色과 形을 中心으로 한 一種의 造形이란 點은 類似하다. 그러나 알몸의 肉體를 가진 人間을 直接 素材로 하는 것은 美術과 다르다. 繪畫, 彫刻은 作家 個人의 純粹한 意識과 個性, 즉 自己의 小宇宙만이 評價의 對象이 되기 때문에 極端的인 飛躍이 나타날 수 있다. 筆者는 「크리스장·디올 研究」⁹⁾에서 服飾의 造形的 特質에 對해서 言及했을때 服飾은 입고 치장

8) 板倉壽郎 「被服美의 構造」 『美學』 六十三號

9) 拙稿 「크리스장·디올 研究」 『國民大學論文集』 第12輯.

하기 爲한 表現이며, 다른 美術作品처럼 눈으로 보기 爲한 表現이 아니라고 指摘한 바 있다.

그러므로 各時代의 人間들의 「物」의 表現方法 즉, 作家의 表現方法 혹은 民族의 表現方法으로 樣式을 考察한 다음이 아니면 作品에 나타난 服飾의 모습을 있던 그대로의 服飾의 모습으로 把握할 수 없다. 미케네 女性服飾의 貴重한 資料中에 티린스에서 出土한 「箱子를 든 宮女」¹⁰⁾라는 壁畫가 있다. 이 宮女가 입은 스커트-트는 中央에 絶斷線같이 보이는 直線이 있어서 이 스커트-트를 디바이디드·스커트라고 하는 說이 있다. 그러나 미케네 美術의 表現方法에서 보면 그들의 美術이 非寫實性, 形式化, 抽象化, 圖案化에의 傾向이 있어서, 이 中央의 線은 반드시 絶斷線을 表現한 것이 아니라, 드레이프의 表現이었던 것이 아닐까? 이러한 例는 文學作品에도 보인다. 劉長卿의 詩에 「蜀都青襟滿」은 青襟이 單純한 襟의 表現이 아니라 青年學生을 意味한다. 이처럼 作品의 모습과 現實의 모습과의 사이에는 人間의 創造하려는 意志의 움직임이 介在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에는 한 時代의 服飾形式과 다음 時代의 服飾形式이나 다른 地域의 服飾形式의 影響關係를 考察하여 거기에 服飾의 흐름을 얻으려는 方法이다.

蓮華文은 東洋이나 西洋이나 古代로 부터 즐겨 使用해 온 文樣이다. 그런데 이 文樣의 形式上的 類型에서 西洋에서 東洋으로 傳來된 것처럼 生覺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自然發生的으로, 즉 東洋과 西洋에서 各各 發生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또 龍文樣이나 唐草文樣도 같은 경우로 말할 수 있다. 唐草文樣은 西方系의 植物文樣인 팔메트와 中國系의 非植物文樣인 龍文이나 雲文의 變化形¹¹⁾이 三國時代에는 混合되어 나타났다. 그리하여 흔히 忍冬文이라고 西方傳來로 論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形式上的 類型에 의해서만 論한 結果라고 하겠다.

中期미노아 第一期 크노소스 隣近에서 發見된 象牙彫刻의 「約婚」中에 女性服은 주름이 있는

옷감을 위로 둘러 입은 것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地域의 卽第一王朝時代의 엘·오베이드의 닌·구르사그神廟및 壁面浮彫部分에 나타난것이나, 앗술出土의 禮拜者像, 깃슈出土 조개껍질 象嵌斷片에 나타난것, 테르로出土의 「神에게 인도되는 구데아」¹²⁾ 등에서 보이는 입는 方法과의 形式的인 類似點에서 곧 오리엔트의 服飾과 에에게 海의 服飾과의 影響關係를 論하고 그 흐름을 불러고 하는 方法이다. 이러한 方法은 M.G Houston의 著書¹³⁾에도 보이며 東洋服飾을 論할 때도 많이 보였다. 類似形式은 自然發生的으로 아무 關係없는 다른 地域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反面에 繼續된 하나의 흐름을 그 속에 包含하면서 形式的으로는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그 例로 古代 에에게海服飾에서 古代 희랍服飾으로 흘러간데 대한 解決은 形式的 類似性만을 問題로 하는 限不可能하다. 그러므로 充分히 考察하지 않은 形式上的 傾向的 特徵으로 곧 服飾意識의 表現이라고 보면 危險性을 內包한다.

한 時代의 服飾形式과 한 時代의 古事를 連關시켜서 그 時代의 服飾性을 나타내려는 方法이 있다. 中世 服飾을 論하는데 「베리公의 祈禱書」같은 미니아츄르를 資料로 하여 繪畫上에 나타난 이야기와 服飾形式을 연결하는 方法이라던지 騎士들의 古事를 文學作品을 資料로 하여 使用하여 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服飾形式의 古事的인 說明은 風俗史의 解說과 같은 當時의 生活現象의 樣態를 어떤 範圍에서 빼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勿論 風俗이라는 側面도 注目해야만 하는 곳이다. 風俗은 모-드가 習慣化 되어서 나타나는 現象中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服飾을 風俗의 한 樣相으로 보는 風俗史나 或은 社會世相史로 取扱하여 服飾史를 생각하는 것은 可能하며 이것으로서 成立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風俗, 或은 社會世相에 焦點을 대고, 服飾은 이른바 이를 解明하는 手段的 資料로 보여지는 것이므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服飾의 本質解明을 爲한 服飾史라

10) 『世界美術全集 5.ギリシア』平凡社 昭和 26年 圖版 34. p. 21.

11) 拙稿「唐草紋樣의 系譜」『美術資料』第十八號.

12) 『世界美術全集 3. 古代西アジア』平凡社 昭和 29年 圖版 18.

13) M.G. Houston :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and Persian Costume A. & C. Black (London) 1972.

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服飾의 形態를 問題로 하는 方法이 있다. 즉服飾을 人間表現의 한 方法으로 생각하여, 어떤 狀態로 存在한다는 것에서 造形으로 形態를 問題로 하는 方法과, 人間の 行爲로 形態를 問題로 하는 方法이 있다. 造形으로 取扱하는 것은 各 時代의 造形樣式에서 服飾을 다루는 方法이다. 西洋服飾史의 경우 크라식, 비잔틴, 로마네스크, 코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古典主義, 浪漫主義 等の 造形樣式에서 服飾의 特徵을 짓게 한다. 이는 服飾이 內包하고 있는 造形上을 一般造形에서 位置를 定하고 그 樣式을 지탱하고 있는 意志的인 것을 探究하려고 하는데 있다. 한 예를 들면 中世服飾을 論하는데 建築을 中心으로 하여 彫刻, 繪畫, 工藝 等の 有機的統一中에서 取扱하여 빛의 問題로 展開하는 方法이다.¹⁴⁾ 이것은 服飾品을 中心으로 하여 생각해서 理論 展開하는 立場에 있다고 본다. 이는 造形의 特性인 物的材料性, 空間成立性, 可視的性에 의해서 規定된 服飾을 考慮한 것이다. 또한 時代를 論하는데 裝身形態에 焦點을 둔 考察에 關係해서도 마찬가지 일이다. 이 경우는 人體가 服飾品과 같이 物的材料性, 空間成立性 可視的性에 의해서 規定된다. 이러한 方法들은 服飾을 物的 作品概念에 의해서 處理하려고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美術史나 造形史 中에서 服飾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服飾史本來가 가진 問題에 對하여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틀림없이 美術史도 服飾史도 이것이 表現이라는 觀點에서는 이들 樣式의 주변에 共通的인 基盤 或은 根據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反對로 그 共通의 根據에 지탱하여 나타나는 것, 즉 人間이 나타낼려고 하는 行爲에서 나오는 結果, 或은 產物은 美術의 경우 美術作品이라는 作品인데 反해 服飾의 경우는 人間の 生의 行爲 或은 作用인 것이다. 여기에는 美術과 같은 作品의 概念이 없다. 美術의 作品과 같은 次元에서는 「치장한다」는 行爲가 있다. 服飾은 一般的으로 作品이라고 부르는 服飾品은 이에 의해서 服飾이 成立하는 것이 아니다. 치장하지 않은 服飾品은 構造的 役

割에서 단지 素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服飾을 造形으로 보고 形態를 問題로 하는 方法은 時代 樣式의 根據에 接近하는 가장 좋은 方法이며 學的인 것이지만 반드시 服飾史 固有의 問題를 全部 解決해 주지는 않는다.

V. 服飾史學의 方向 提示

이와같이 服飾史의 方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從來「學」으로 생각해 온 方法이 服飾의 固有性, 或은 自律性을 獲得한다는 本來의 役割에서 벗어나「物」이라던지「物語的 知識 興味의 結果」로서 나타났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學으로서의 服飾史라고 하기보다 知識으로서의 服飾史라고 하겠다.

그러면 學으로서의 服飾史의 方法은 어떠한 것일까. 이는 服飾의 自律性을 目標로 한 史的 展開를 追求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服飾이 成立되는 構造에서 考察하는데 「表現樣態」로서 史的 展開를 考慮해야 한다는 意味를 뜻한다. 服飾이 成立되는 構造에 關係해서는 板倉氏¹⁵⁾가 말하는 것처럼 人間 表現의 藝術과는 다른 原理的 樣態를 말하며 이것은 結局 「치장한다」는 表現 樣態와 連關되는 것이라 하겠다. 服飾을 表現 樣態에서 成立한다고 생각하는 限, 服飾史의 問題도 表現 樣態라는 思考 위에서 考察해야 할 것이다. 이 表現 樣態는 勿論 風俗史家들이 말하는 皮相的인 風俗에 對한 樣態의 現象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다. 構造的 意味에서 「치장한다」는 表現 樣態이다. 다시 말해서 史的 服飾事象의 表現 樣態의 意味를 말한다.

그러면 먼저 問題가 되는 것은 치장한다는 表現 樣態의 存在를 찾는 것이다. 이는 내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내가 存在하는 世界에서 치장한다는 表現 樣態의 存在를 찾는 것이다. 이는 「世界—內—存在」¹⁶⁾로서 치장한다는 表現 樣態의 存在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世界를 有機的인 作用의 關係에서 나타나는 치장에 意味를 주어, 存在論의 치장은 明白해지며 史的 展開에서도 치장은 明白해지는 것이다.

14) 板倉壽郎 「中世における光の問題 1」 『服飾美學』 第二號

15) 板倉壽郎 「裝いの意味への一考察」 『服飾美學』 第一號

16) Martin Heidegger의 基礎的인 存在論의 中心概念.

그러나 以上 말한 意味에서, 또 方法에서 世界 概念 속으로 意味를 붙인 立場은 服飾 그 自體의 本質에서 벗어나 단지 立場은 「世界——內——存在」라는 論理로 될 危險性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史的 服飾 事象의 次元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取扱할 수 있는 것은 造形性에 規定된 것의 「物」로된 혹은 「素材」로된 服飾品이다. 여기서 物을 立場한다는 表現樣態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素材인 物件에서, 人間의 行爲나 作用에 의해서 나타난 形態를 찾아서 거기서 根據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비로소 服飾 固有의 흐름을 把捉할 수 있을 것이다.

美術史는 우리들이 가깝게 作品을 대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根據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服飾史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 앞에는 作品이 되기 前의 素材인 「物」밖에 없다. 그러므로 以上과 같은 方法에 의해서 만이 根據에 到達할 수 있지 않을까?

VI. 結 語

以上 學으로서의 服飾史의 位置, 目的과, 從

來 服飾史의 方法論에 對한 反省 및 앞으로의 方向을 보아 왔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觀點은 服飾 그 自體가 한 固有의 生命이며 精神인 同時에 여기에 固有한 歷史를 갖는 것을 認識하는 것이다. 워낙 服飾史는 文化史의 한 줄기로서 或은 一般精神史의 一部로서 恒常 다른 領域과 密接하게 關係하며, 서로 制約되고 制約 받아 오는 中에 짜여 지고 있다. 그러나 결코 다른 어떤 領域으로 解消될 수도 없는 服飾自體가 하나의 特殊한 生命, 精神의 領域을 籠으며 存在하는 것이다. 服飾史는 그 自體가 하나의 特殊한 文化史이며 同時에 하나의 獨自的인 精神史이다. 服飾史의 自律이란 결코 獨斷的인 排他性이나 非歷史的인 孤立性 등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反對로, 服飾史 그 自體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固有性, 特殊性, 獨自性을 自覺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다른 여러 領域과의 關連도 正當하게 發見되는 것이며 服飾의 本質에 到達하게 될 것이다.